

소적새마을 등 31곳 지원 시급

재정열악해 시설구비 못한채 15일 지자체 신고

"3년내 정부기준 못 맞추면 강제 폐쇄"

무허가 조립식 가건물 6동, 후원금과 후원물품 의존율 100%, 9살 꼬마 아이부터 85살 노인까지 215명의 장애 가족, 시설이 낙후돼 수용자들은 생활공간조차 넉넉치 못하다. 때문에 지난 5일, 소적새마을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양성화 신고를 했다. 하지만 기간 내 시설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당국에 의해 강제 폐쇄된다.

최근 본지가 불교계 미신고시설 36곳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 원주 소적새마을, 경기도 화성 자재정사, 부산 더불어 사는 집 등 31곳(86.1%)이 15일까지 해당지역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양성화 신고

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불교계 미신고 시설 대부분이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주는 복지부의 '조건부 신고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초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보수비용으로 시설당 3천만원과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전 시 개·보수비 또는 임차료로 시설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양성화 신고시설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시설 대부분이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다가 정부가 제시한 시설기준 조건을 맞추자 예산충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적새마을 원장 현각 스님은 "수용인원만 215명이 넘다보니 이들의 안전 등의 문제를 제도권에서 풀 수밖에 없었다"며 "유예 기간 동안, 구비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부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양성화라는 고육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경기도 용인 봉로원, 충남 아산 봉곡사 등 5곳(13.9%)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크다. 수용인원 10인 이하 규모의 이들 시설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 조건 충족은 애초에 무리라고 판단, 신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신고전환 시설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중요계 사회 복지 연대 모색 △운영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인적자원 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u-gan@buddhanews.com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 남아 있지만 민족 최대명절 한가위 추석은 역시 고향의 따뜻함과 풍성함을 느끼게 한다. 18일 서울 미아2동 삼양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절하기, 투호, 송편 빚기 등을 하며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영배기자**

"종단 비하 발언 좌시않겠다"

진각종, "정대원장 발언 중도모독" 강경항의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진각종 비하 발언과 관련해 진각종은 17일 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진각종은 성명에서 "정대스님의

발언은 진각종도들을 모욕한 언어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진각종이 왜 불교가 아닌지 △원불교와 기독교만도 못한 종단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백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진각종 문화

사회부장 무외정사는 "민족말한 단편이 없을 경우 진각종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구독료 내달부터 월 5천원

기존독자 종전대로 월 4천원 적용
10월부터 4개면 증면 28면 발행

창간이후 구독료 변동상황			
일시	발행면수	구독료(원)	
1994.10.15	16	→ 4,000	
1997.1.1	20	→ 4,000	
1997.10.1	24	→ 4,000	
2002.10.1	28	→ 5,000	

삼가 아쉽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구독료가 신규 독자에 한해 현행 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릅니다. 구독료 조정은 창간 이래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불교계 다른 신문은 약 33%가량 구독료를 인상해 왔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더 많은 면수에 불구하고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고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신문 1부당 순수 제작 원가가 창간일인 1994년 10월15일에 비해 2002년 9월 현재로 제작비·발송비·인건비 등을 포함해 67%나 상승했습니다.

현대불교는 구독료 인상을 계기로 독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현 24면 발행체제를 오는 10월2일부터 A판 12면 B판 16면 등 총 28면 발행체제로 변경합니다. 더욱 풍부한 정보, 생생 속의

새 구독자 관음보살도를 드립니다



◇관음보살도

구독료를 내실 때 은행 지로 방식을 이용하시는 경우 매월 1회 지로용지를 보낼 때마다 용지 값 우편요금 등 건당 210원이 들며, 계다가 연례로 인해 3~4회 씩 지로용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되면 가뜰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독제정의 비용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반면에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건당 비용(은행 수수료)은 지로방식의 31%절감된 145원이 됩니다.

이에 새로 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사은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음보살도(27cm×37cm, 시중판매가 2만원상당)를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면 수준 높은 예술품이 됩니다.

이번 사은 행사는 연말까지 계속되오니 적극 동참하셔서 뜻 깊은 인연지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객부 (02)737-0090

현대불교신문사

법익 조대 일우 스님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부처님 법은 몸과 마음에 배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기 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가을, 독서의 계절에

우리들이 안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감정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특유의 넉넉한 시선과 따뜻한 필체로 그려낸 틱탄 스님의 <화>가 불교책방 여시아문에서 3개월째 1위를 달리고 있다. 사내 대형 서점에서 <화>는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그 열풍이 대단하다.

이 책들의 선전은, 일반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그동안의 목마름

놓은 불서는 한달 평균 20여권 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문학술서의 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관광부가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하고, '책 읽는 우리사회 book- Korea'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상전자책 체험관'을 운영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추석귀성객 도서 나누어 주기' 행사도 펼쳤다. 이밖에 '전국 지역간 책 선물을 릴레이' '가정 독서운동 캠페인' '국민독서 불 조성 마라톤대회'를 비롯해 공공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1500여건의 독서 행사가 연달아 열렸다.

독서의 달 9월에 불교계에서 준비된 행사는 불교책방 여시아문의 개성 8종 기념 불서 특별 할인 판매전 뿐이다. 불교출판의 미래는 곧 불교의 미래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불자들의 독서봉을 이끌어 낼 만한 변변한 행사가 없다. 왜 우리는 항상 대형 불사만을 생각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항상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걸까? 불자들의 내면을 살펴주고, 일반인도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불서 만들고 읽기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은자(취재 2부 차장)



에 대한 일종의 신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불서 읽기 권식을 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를 책은 전체적인 불서 판매량의 증가추세를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불교출판 시장을 잠식하는 꼴이 되고 있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불서의 출간을 위해 불교전문출판사들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일부 과대 포장되거나 인문 등 홍보 매체를 통한 책 팔기 경쟁도 한두차례.

올해 불교전문출판사들이 내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군승파견

1. 조계종은 진각종립 위대대를 군승파견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공감한다면 그 이유는?공감할 경우만 응답하세요

①기존의 군승단 운영이 혼란 ②종지종통의 차이로 인한 혼돈 ③포교 방법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④기타

2. 공감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공감하지 않을 경우만 응답하세요

①군 포교여건 개선이 급하므로 ②타종교에 비해 현격히 적은 군법사 문제 해소 ③종립학교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④기타

설문 참여: 9월 26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집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와 현대불교 389호 8면에 실습니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으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7-8881, 02-722-4162 팩스: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달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발 받침대, 연화문 옹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카드로 봉인불사름..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카드로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카드로 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점(4책77만화)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